

# Jaeyeon Jung & Stuart Schechter

## CAPSULE INTRODUCTION

### SNU CSE DISTINGUISHED LECTURE SERIES

정재연 박사님은 KAIST 전산학과에서 학사/석사 학위를 받으시고 MIT에서 2006년에 박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그 후에 2006~2007년까지 Mazu networks에서 소프트웨어 아키텍트로, 2007~2011년까지 인텔 시애틀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일하시고, 현재는 마이크로소프트 리서치 연구원으로 재직 중입니다. 정재연 박사님의 주요 연구 관심 분야는 모바일 시스템과 가정환경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IoT 디바이스 등에서 사용자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새로운 기술들이며 현재는 보안 및 프라이버시, 시스템, 네트워킹, HCI 분야를 아우르는 연구를 수행하고 계십니다.

Stuart Schechter 박사님은 Ohio State University에서 학사 학위를 받으시고, Harvard University에서 박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그 후에 MIT Lincoln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일하시고, 현재는 마이크로소프트 리서치 연구원으로 재직 중입니다. Stuart Schechter 박사님은 사용자의 관점에서 보안 (Usable Security)을 향상시키는 분야에 많은 훌륭한 업적들을 남기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정재연 박사님과 Stuart Schechter 박사님은 인텔에 있을 때부터 교류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특히 정재연 박사님과는 인텔 연구소에서 시작해서 그동안 훌륭한 협업을 해 왔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테인트드รอย드(TaintDroid)’ 연구로, 학계에서 Mobile Security의 중요한 연구로 인정 받고 있습니다. 미국 컴퓨터협회에서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Communications of the ACM(CACM)에서는 매달 컴퓨터공학 분야별 최신 연구 중 가장 영향력이 큰 한두편의 논문을 하이라이트로 게재하고 있는데, 정재연 박사님과 협업한 테인트드รอย드 연구가 CACM 3월호의 하이라이트 보고서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테인트드รอย드는 지난 2010년 관련 논문이 출판되며 모바일에서 개인 정보 유출의 심각성을 알렸습니다. 이 논문은 지금까지 700번 넘게 인용되며 산업계와 학계에서 관련 스마트폰 보안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게 하고, appanalysis.org 사이트에서 오픈 소스로 공개되어 활발한 연구를 돕고 있습니다.

본 세미나에서는 두 분의 최근 연구인 Mobile Security와 사용자 측면에서본 암호에 대한 연구를 소개할 것입니다. 두 연구 모두 보안 관련 최고 학회인 Usenix Security 학회에서 올해 8월에 발표할 내용입니다.

한 세미나에서 최고의 두 보안 연구를 미리 들을 수 있는 드문, 좋은 기회를 마련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전병곤, 2014년 6월